

# 노인주택공급을 위한 고령자가구구성의 변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 A Statistical Review on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Households with the Elderly in Seoul, Taegu

배 정 인\*  
Bae, Jeong-In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households with the elderly in Seoul and Taegu by time trends, using census data.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rate of the Single and Couple and Couple+Parent(s) Households with the elderly have been increasing. The rate of 3,4 generation households with the elderly has been decreasing. The trend towards Single and Couple Households in Taegu was higher than that in Seoul. The result this paper is opposite to common knowledge that in general the speed of change in the large city is higher than that of in country town. And it is coincide with the results of the former papers of the writer.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인구 고령화 현상을 주택 문제의 시점에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심신이 약화되며,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는 주택, 즉 노인주택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적절하다는 것의 의

미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다.

첫째, 질적인 면에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적인 면에서 적절한 공급 역시 중요하다. 양적인 파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실제로 구매력을 가진 가구수의 파악이며, 둘째는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수의 파악이다. 전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민간주택공급업자에게는 기업의 사활이 달린 매우 긴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문제를 사회문제로서 볼 때는 후자의 파악이 사회 복지 정책적인 면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사회복지면에서 많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노인주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셋째, 주택은 토지에 고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가 있는 지역의 특성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별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정회원, 국립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표 1. 가구구성의 변천(서울: 전 연령)

	총가구 수	1인·부부가구			기혼자녀와 동거가구			(편)부모+자녀·기타		
		1인가구	부부가구	소계	(편)부모+부부	3세대 이상	소계	(편)부모+자녀	기타	소계
1960	441542	8585 1.9%	통계없음		통계없음	76794 17.4		통계없음		
1970	1029483	통계없음	73482 7.1%		12535 1.2%	146480 14.2%		717980 69.7		
1975	1375836	54676 4.0%	69194 5.0%	123870 9.0%	4302 0.3%	185844 13.5%	190146 13.8%	905703 65.8%	156117 11.3%	1061820 77.2%
1980	1836903	82477 4.5%	101135 5.5%	183612 10.0	6557 0.4%	232274 12.6%	238831 13.0%	1179089 64.2%	235371 12.8%	1414460 77.0%
1985	2324219	156207 6.7%	136421 5.9%	292628 12.6%	8728 0.4%	271196 11.7%	279924 12.0%	1483626 63.8%	268041 11.5%	1751667 75.4%
1990	2814845	257382 9.1%	167237 5.9%	424619 15.1%	12324 0.4%	281332 10.0%	293656 10.4%	1784628 63.4%	311942 11.1%	2096570 74.5%
1995	2965794	382024 12.9%	228585 7.7%	610609 20.6%	14515 0.5%	257545 8.7%	272060 9.2%	1803042 60.8%	280083 9.4%	2083125 70.2%

표 2. 가구구성의 변천(대구: 전 연령)

	총가구수	1인·부부가구			기혼자녀와 동거가구			(편)부모+자녀·기타		
		1인가구	부부가구	소계	(편)부모+부부	3세대 이상	소계	(편)부모+자녀	기타	소계
1960	120575	3456 2.9%	통계없음		통계없음	24084 20.0%		통계없음		
1985	499592	41764 8.4%	28772 5.8%	70536 14.1%	2037 0.4%	60055 12.0%	62092 12.4%	308726 61.8%	58238 11.7%	366964 73.5%
1990	597150	59890 10.0%	41098 6.9%	100988 16.9%	2836 0.5%	66571 11.1%	69407 11.6%	370512 62.0%	56243 9.4%	426755 71.5%
1995	670643	78994 11.8%	55648 8.3%	134642 20.1%	3832 0.6%	64088 9.6%	67920 10.1%	416015 62.0%	52066 7.8%	468081 69.8%

중요할 것이다. 크게는 각 국가별로 수요가 파악 되어야 할 것이고 작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가 파악 될 때 적절한 주택 공급 정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구의 특성별, 지역별, 고령자 가구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것은 노인주택 문제를 다룰 때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고령자가구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에 관한 파악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천경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년 변화의 파악은

과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해와 아울러 미래의 예측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한 가구의 변천을 1960년도부터 1995년도 까지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별 및 가구 특성별로 고찰함으로써, 노인주택문제에 관련된 기본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지역으로는 서울과 대구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자의 기 연구들(2000, 1999)에서 전국과 경상북도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므로

표 3.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하는 가구구성(1995년)

	총가구수	1인·부부가구			기혼자녀와 동거가구			(편)부모+자녀·기타		
		1인	부부	소계	(편)부모+부부	3세대이상	소계	(편)부모+자녀	기타	소계
서울	36,6461	38918	43851	82769	9272	184783	194055	54149	35488	89637
		10.6%	12.0%	22.6%	2.5%	50.4%	53.0%	14.8%	9.7%	24.5%
대구	87879	11097	11965	23062	2516	43926	46442	10189	8186	18375
		12.6%	13.6%	26.2	2.9%	50.0%	52.8%	11.6%	9.3%	20.9%
전국	2182187	349020	386282	735302	96181	914248	1010429	245521	190935	436456
		16.0%	17.7%	33.7%	4.4%	41.9%	46.3%	11.3%	8.7%	20.0%

전국의 중심도시인 서울과 경북지역의 중심도시인 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면, 두 도시의 노인주택문제에 관련된 기본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간의 비교 고찰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 2. 연구 방법과 내용

지역별 가구특성별로 가구수를 파악하는 연구방법으로 인구구조상이점에 의한 지역별 주택수요예측방법이 있다. 이것은 가구의 연령에 따라 주택 수요층을 독신용 임대수요층, 세대용 임대수요층, 전기 자가수요층, 후기 자가수요층, 노인주택수요층의 5단계로 구분하고, 이 5단계 연령층의 가구주 수의 파악이 각각의 5가지 주택의 요구·수요량의 파악과 이어지는 것에 착목하여, 각 지역별 남자인구구조의 증감으로 각 단계의 주택유형별 수요의 증감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야케(三宅, 1985)가 2차대전이후의 일본의 주택사정의 변천을 분석, 설명하는 데에 사용한 연구방법<sup>2)</sup>을 응용한 것으로 필자(1995)<sup>3)</sup>와 김태일(1994)<sup>4)</sup> 등에 의해 소개된 방법이다. 이것은 인구 및 가구주 수와 주택수요와의 너무나도 당연한 연결고리를 재인식시켜준 방법이며, 또한 가구의 특성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어, 가구의 특성별 가구주 수의 파악의 당위성을 입증해준 연구라 하겠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로 다른 표본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 규모가 커 자료의 정확성과 대표성이 높은 자료인 인구 주택 총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선례를 남긴 연구

방법이다.

그런데, 이 연구방법 그대로는 노인주택수요층인 고령자가구를 가구특성별로 재분류하기 어렵다. 굳이 재분류하자면 노인의 연령에 따라 전기 노인주택과 후기 노인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분류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만 변별력이 있는 분류이며,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주택의 유형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정도의 차이만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방법의 기본적인 구조, 즉 가구특성별 가구주수를 지역별로 파악하는 구조는 지속시키면서, 고령자를 포함한 가구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노인주택의 유형을 제시하는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입수에 있어서,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구의 정확도 및 효율에 기여하므로 인구 주택 총 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최근의 일련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는 가구구성을 먼저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4세대이상가구, 1인 가구로 크게 나눈 후 각기 하부항목으로 다시 나누어 집계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분류 틀은 고령자의 거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변별력이 없는 분류이므로 고령자들만 거주하는 「1인·부부」 가구, 결혼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기혼자녀와 동거」 가구, 그 밖의 「(편)부모+자녀·기타」 가구로 재구성하였으며, 고령

자들만 거주하는 가구는 다시 「1인가구」와 「부부가구」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3세대 이상동거가구」와 「(편)부모+부부가구」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 틀은 각기 그에 적합한 노인주택의 유형을 제시하는 기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류 틀을 사용하면서 고령자를 포함한 가구구성의 변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가구구성별 가구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연령별 가구구성별 가구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인구구조상의 특정 연령대의 인구 증감의 영향을 배제하고 보다 정확한 변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연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가구구성별 가구수의 비율의 변화를 고찰한다. 또한 출생코호트별로 각 연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가구구성별 가구수의 비율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 본 결과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없고 연구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도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 II. 가구구성의 변화

가구구성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술한 분류틀에 의거하여 1960년부터 1995년까지의 서울과 대구의 가구구성의 변천을 살펴본 것이 표1, 표2이다.<sup>6)</sup>

서울, 대구 모두 (편)부모+자녀 및 기타 가구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1인·부부가구가 증가하고 기혼자녀와의 동거가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구구성의 변화경향과 일치하고 있다.<sup>7)</sup>

1인·부부가구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의 부부가구는 그다

지 변화가 없다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대구의 기혼자녀와 동거가구의 변천경향이 동거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의 가구수는 1990년까지 오히려 증가해 왔음은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이다. 이는 경북지역에서 기혼자녀와 동거가구가 비율과 가구수에서 함께 감소해 온 것<sup>8)</sup>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기혼자녀와 동거비율의 감소는 3세대이상동거에 의한 것으로 (편)부모+부부의 경우는 극히 적은 비율이긴 하나 197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은 같은 분류틀에 의해 65세 이상의 가구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1인·부부가구의 비율은 서울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대구이며 전국 평균이 가장 높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거꾸로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 전국평균의 순이다. (편)부모+자녀, 기타가구는 서울 대구 전국평균의 순으로 소폭이나마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각 항목마다 서울, 대구, 전국평균이라는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를 포함하는 가구구성에 관한 데이터가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는 1995년도밖에 없어 위의 분류 틀에 의한 직접적인 경년 변화는 살펴볼 수 없지만,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수가 각 연령층 총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의 경년 변화를 전국, 경북지역에서 고찰한 연구들<sup>9)</sup>의 결과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가구구성의 변화흐름인 1인·부부가구의 증가, 기혼자녀와의 동거가구의 감소경향이 고령자를 포함하는 가구구성에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 변화경향에 비추어 볼 때, 1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서울 대구 전국의 순으로 높아지고 기혼자녀와의 동거가구의 비율이 서울 대구 전국의 순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대도시일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반적 통념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 Ⅲ. 연령별 가구구성별 가구수의 동향

이상에서 드러난 가구구성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의 연령별 가구구성의 변화에 관해 1인·부부가구 및 기혼자녀와 동거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sup>10)</sup>

그림1과 2는 서울과 대구의 1인 가구수의 경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5-29세를 피크로 하는 젊은 층에서 가장 현저하긴 하나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수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과 4는 서울과 대구의 부부가구수의 경년 변화이다. 25-29세 이하에서는 거의 고정된 가구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서울 대구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 현저하다. 그리하여 1985년에는 25-29세의 피크만이 있었으나 점차 60-64세를 중심으로 하는 노년기에도 또 하나의 피크가 형성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족도 그 가족생활주기가 친자동거기의 다음에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부부후기로 넘어가는 가구수가 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서울의 부부가구수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갑자기 증가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증가는 젊은 신혼부부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고령자 부부가구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5와 6은 서울과 대구의 (편)부모+부부 가구수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므로 그래프의 눈금 단위를 타 그래프의 10%로 하여 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 대구 모두 5,60대를 피크로 하면서 노년기에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30대의 가구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표1,2의 (편)부모+부부가구의 소량의 증가는 편친이나 양친과 동거하는 2,30대 부부의 증가보다는 5,60대의 부부가 노부모나 편친과 동거하는 가구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3세대동거가구로 살다가 장성한 자녀는 떠나고 부부와 노(편)부모만 남은 경우 및 5,60대 이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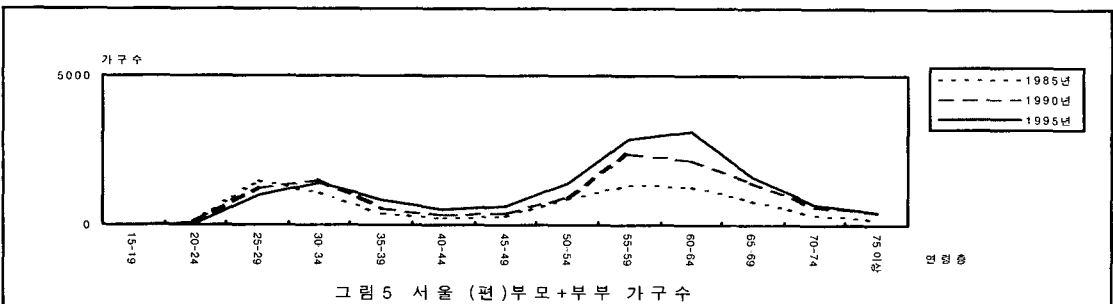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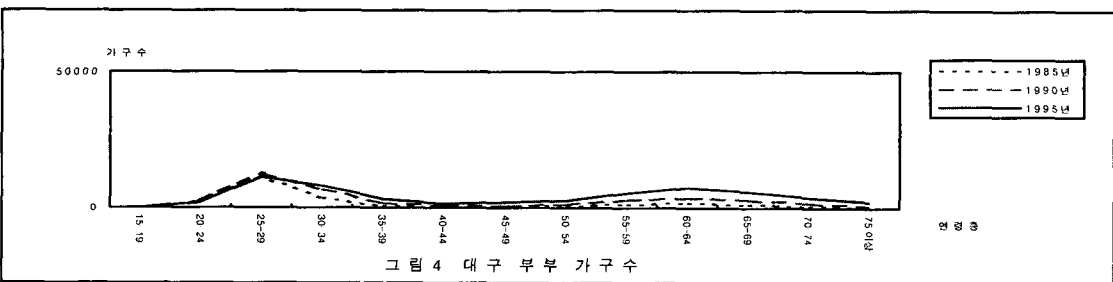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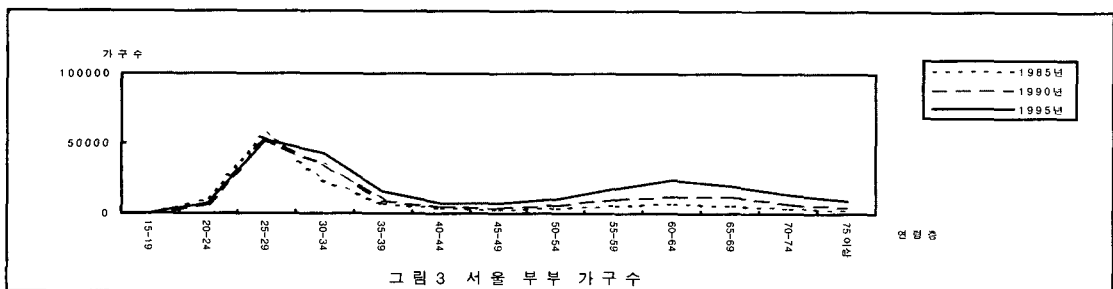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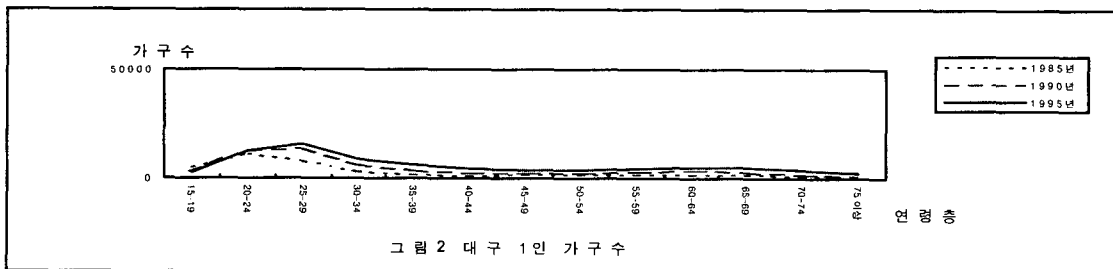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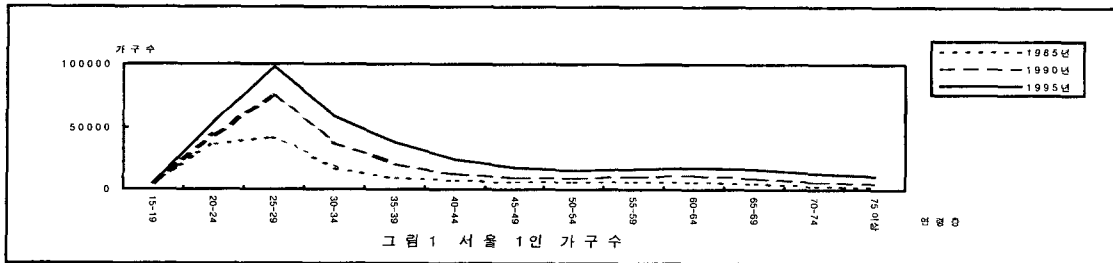
연령에서는 핵가족으로 살다가 장성한 자녀는 분가해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독거가 불가능해진 노(편)부모와 새로이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는데, 어느 쪽이든 모두 젊은 기혼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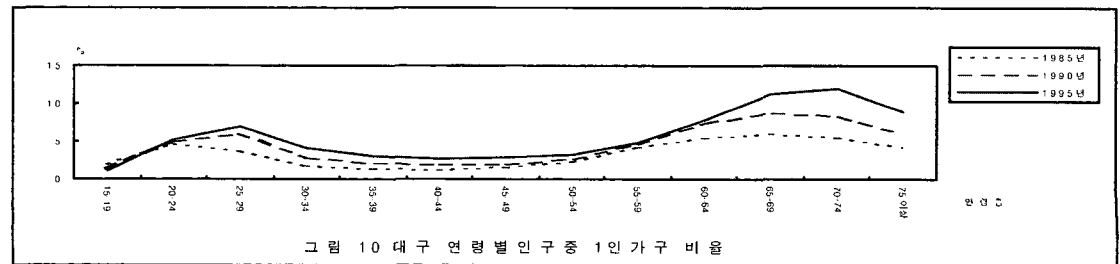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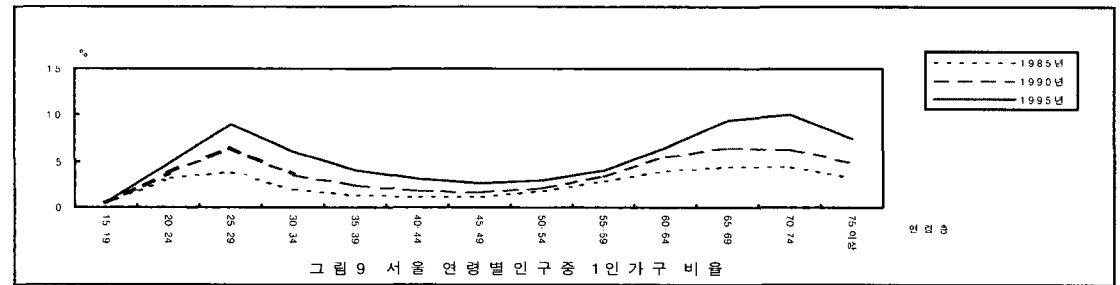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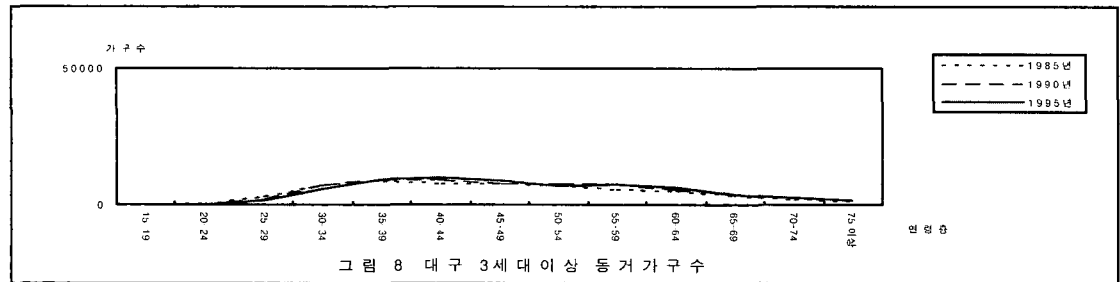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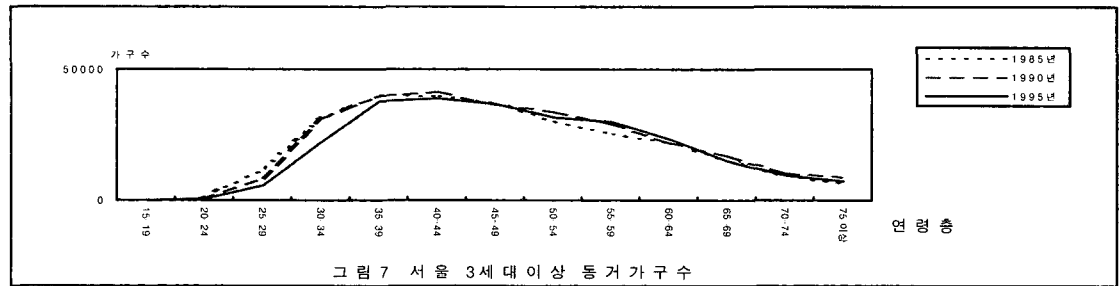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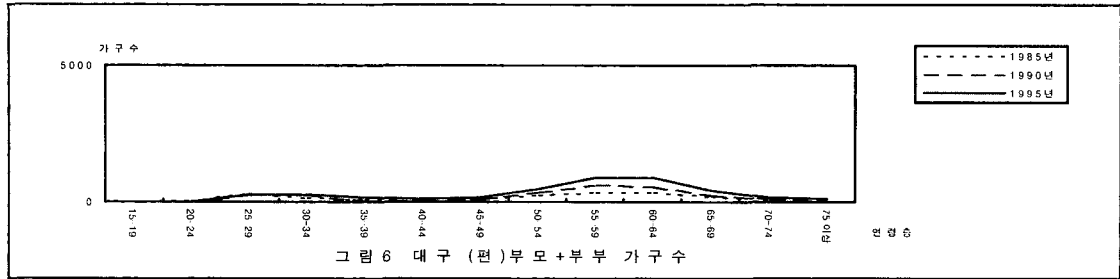
그림 7, 8은 서울과 대구의 3세대이상 동거가구 수이다. 1985년에서 1995년사이의 3세대이상 동거가구 수는 표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Ⅳ. 출생코호트별 소속가구비율의 동향

지금까지는 가구수만의 데이터로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가구수만으로는 베이비붐세대처럼 일시적인 가구수의 변동이 큰 경우 및 연령에 따른 자연감소가 있는 경우 그에 영향받아 정성적인 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 연령별 인구중에 차지하는 각 유형별 가구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일정연령집단내의 보다 정확한 변천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9, 10은 각 연령별 인구 중에 1인가구가 점하는 비율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 2에서는 젊은 층에만 피크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70-74세를 중심으로 하는 노년기에도 피크가 있다. 즉, 단순히 가구수의 변화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같은 연령층내의 가구구성의 변화경향을 알 수 있는데, 우선 고령자 1인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은 서울, 대구 공통이나 서울보다는 대구의 경우가 보다 고율임을 알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젊은 독신자의 증가세는 1990-1995년 사이는 주춤한 듯이 보이나 고령자 1인 가구의 경우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비율 면으로는 1995년 25-29세의 독신자보다 70-74세의 독신자가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도시보다 농촌의 고령자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데 그림11의 지방도시





(경북 시부)와 그림12의 농촌(경북 면부)의 1인가구 비율의 추이<sup>11)</sup>와 그림 9, 10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보다는 도시가,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일수록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경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14는 서울과 대구의 출생코호트별 1인가구 비율의 경년 변화이다. 25-29세에서 30-34세 사이는 1인가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결혼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을 고정시켜 보면 어느 연령층에서든지 젊은 코호트일수록 1인가구 비율은 상승한다. 즉 1인가구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34세 이후에는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나이가 들수록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층에서 그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16은 서울과 대구의 각 연령별 인구 중에 부부가구가 점하는 비율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4의 가구수의 변천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고령자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자 부부가구가 그 수에 있어서는 젊은 신혼 부부가구에 비해 적으나 비율에 있어서는 훨씬 높으며, 또한 고령자의 경우 가구수에서는 서울 대구 모두 60-64세가 피크가 있었으나 비율에서는 65-69세가 가장 높으며 70-74세의 비율도 60-64세보다는 높다.

이처럼 고령자층의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림 17, 18의 서울과 대구의 출생코호트별 부부가구 비율의 경년 변화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이를 1인가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50세 이전에서는 경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1인가구의 경우와 다르나 50세 이후부터는 젊은 코호트일수록 급속히 그 비율이 증가하는 점에서 1인가구의 경우와 같다. 출생코호트별 비율의 경년 변화를 예를 들면 1921-192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60-64세가 되는 1985년에는 부부가구 서울 4.1% 대구 5.1%이며, 1인가구는

서울 4.0% 대구 5.6%이고, 그들이 65-69세가 되는 1990년에는 부부가구 서울 7.9%, 대구 9.4%, 1인가구 서울 6.5% 대구 8.8%이며, 70-74세가 되는 1995년에는 부부가구 서울 11.3% 대구 12.8%, 1인가구 서울 10.1% 대구 12.0%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1인·부부가구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5, 16을 그림19의 지방도시(경북 시부)와 그림20의 농촌(경북 면부)<sup>12)</sup>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부부가구에 있어서도 1인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보다는 도시가 그 비율이 낮으며,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1, 22는 서울과 대구의 (편)부모+부부가구의 비율인데, 이를 그림 23, 24<sup>13)</sup>의 지방도시(경북 시부), 농촌(경북 면부)의 (편)부모+부부가구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편)부모+부부가구의 비율은 전 지역에서 극히 조금씩이긴 하나 상승하고 있으며, 그 변화정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26은 3세대이상동거가구의 비율을 각기 서울과 대구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며, 그림 27, 28<sup>14)</sup>은 지방도시(경북 시부), 농촌(경북 면부)의 3세대이상동거가구의 비율이다. 전지역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농촌보다 도시의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 V. 결론 및 제언

서울과 대구의 고령자를 포함한 가구의 변천을 가구구성별로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기의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가구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65세 이상의 1인가구수는 서울 38918가구, 대구 11097가구이고, 부부가구수는 서울 43851가구, 대구 11965가구이다. 각 연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25-29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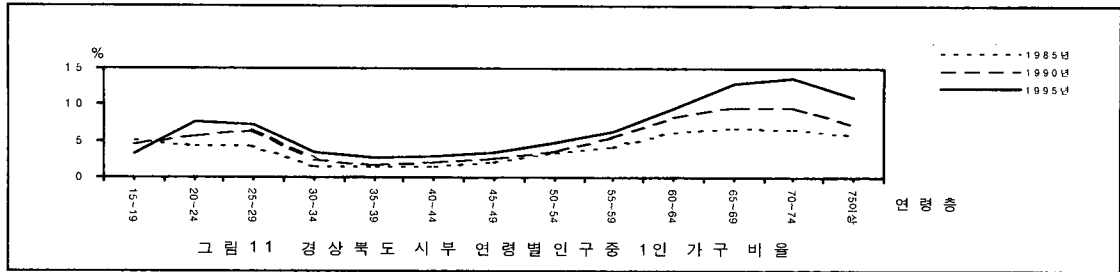


그림 11 경상북도 시부연령별 인구중 1인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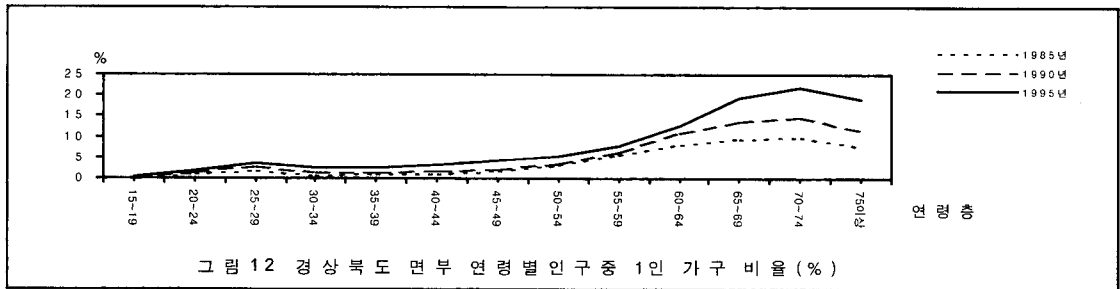


그림 12 경상북도 면부연령별 인구중 1인가구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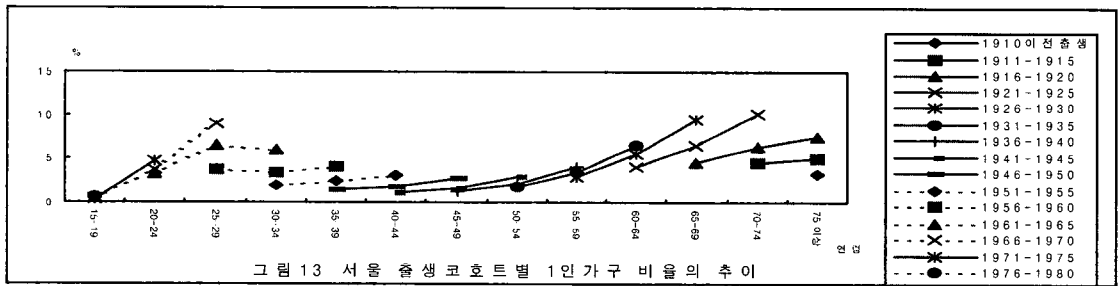


그림 13 시부연령별 인구중 1인가구비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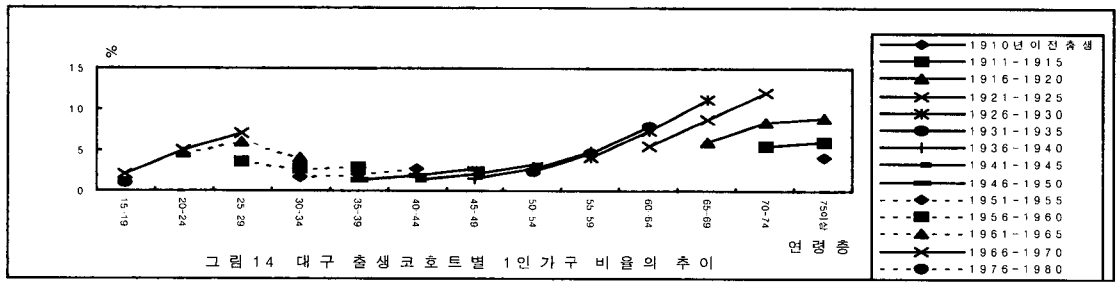


그림 14 면부연령별 인구중 1인가구비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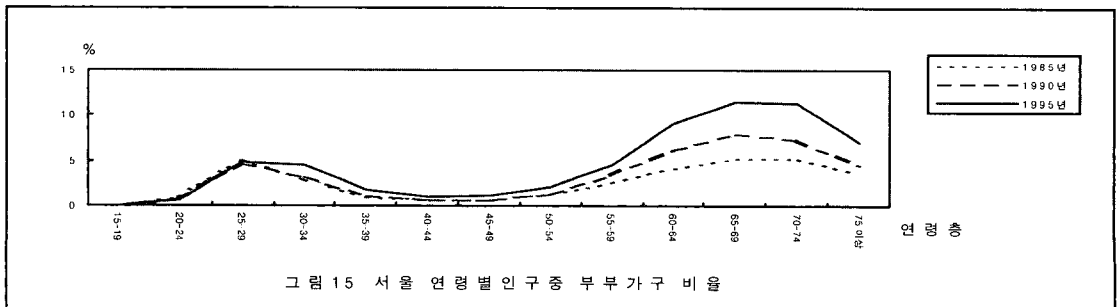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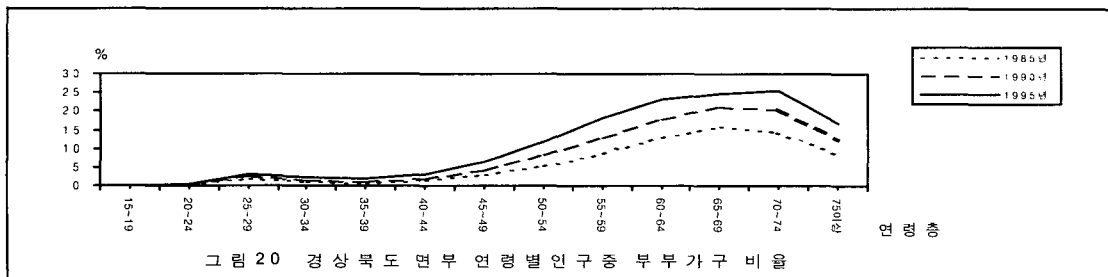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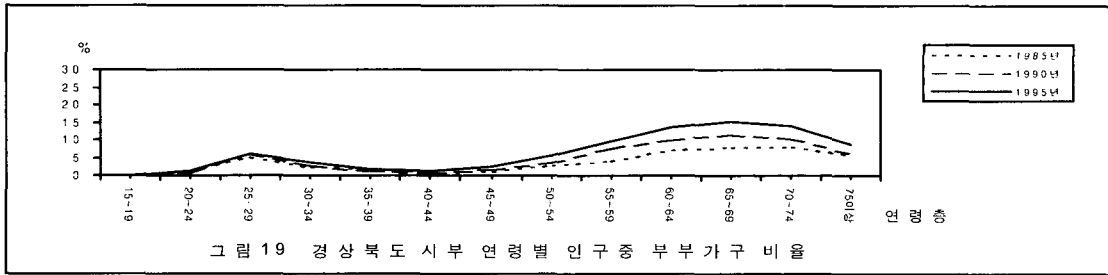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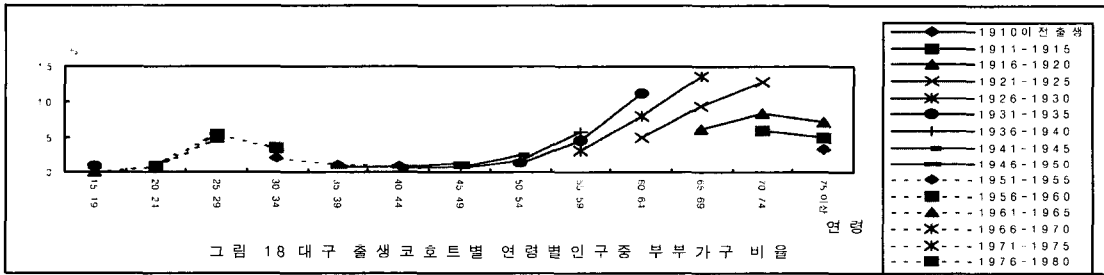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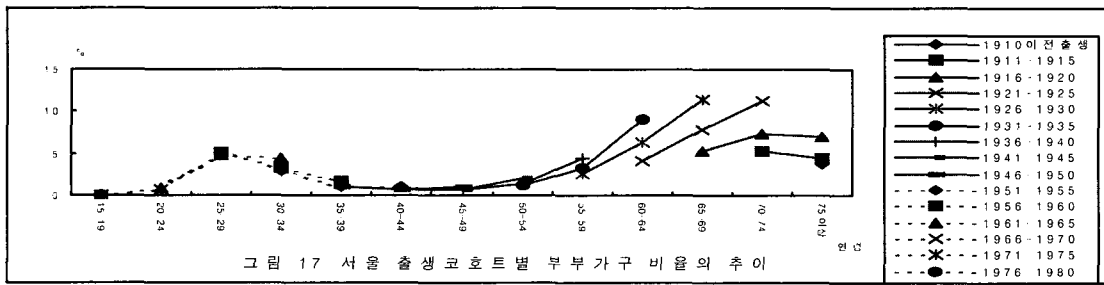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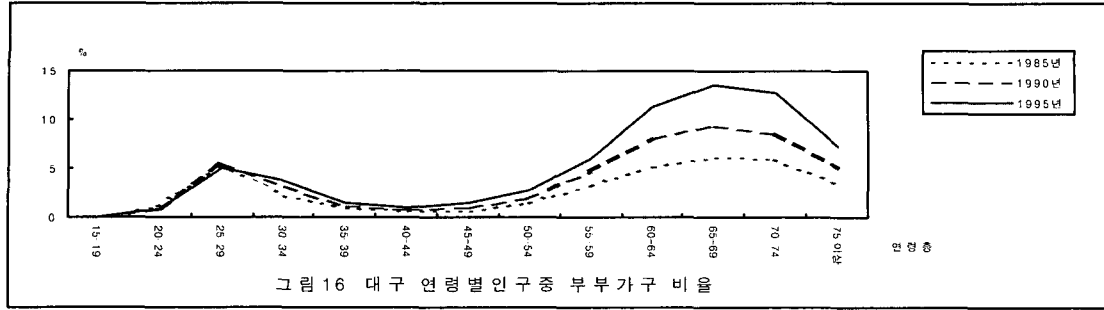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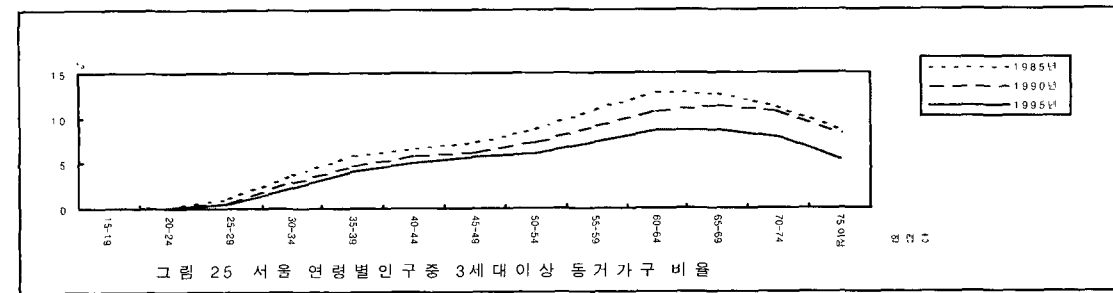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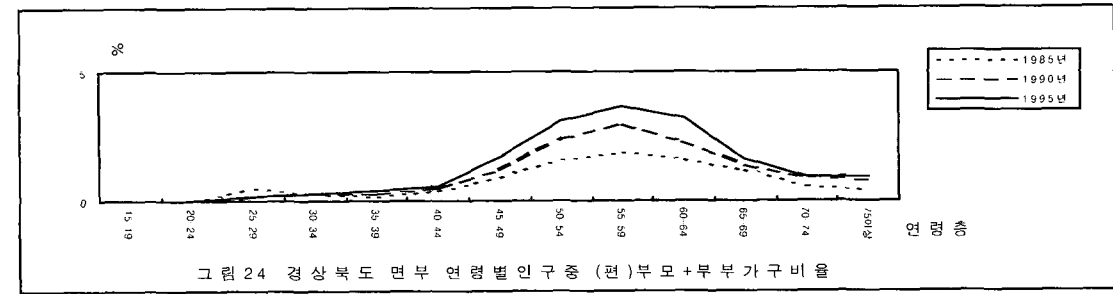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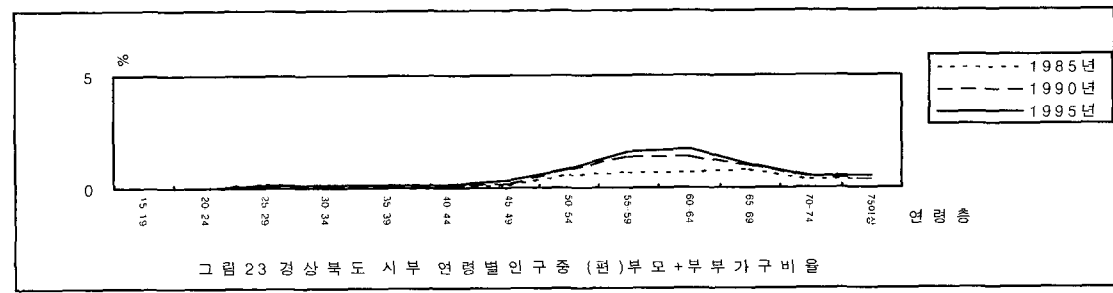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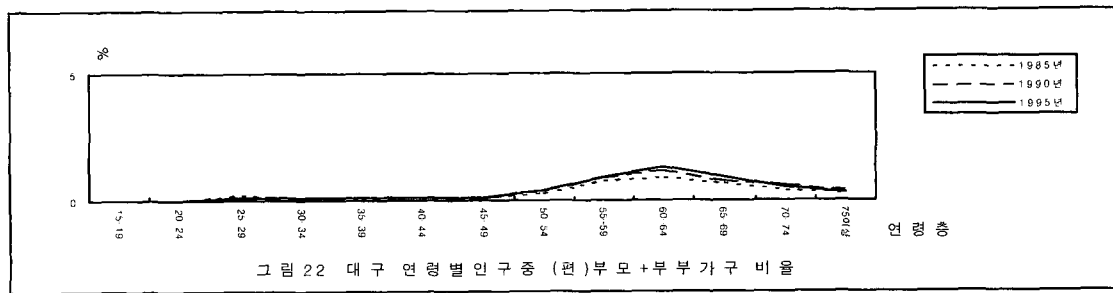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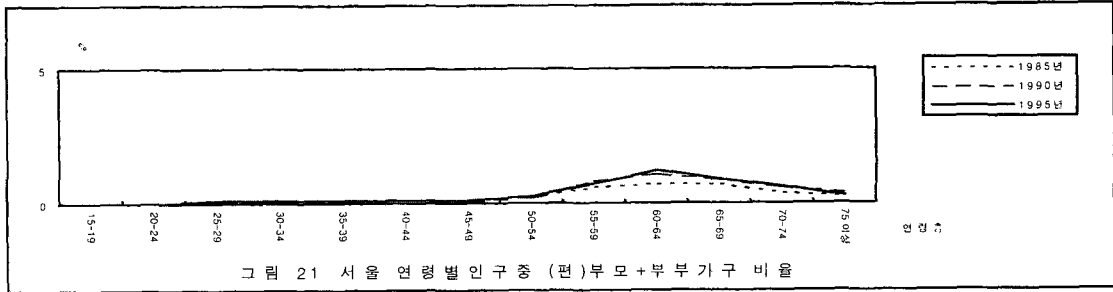


그림 15 시부연령별 인구중 부부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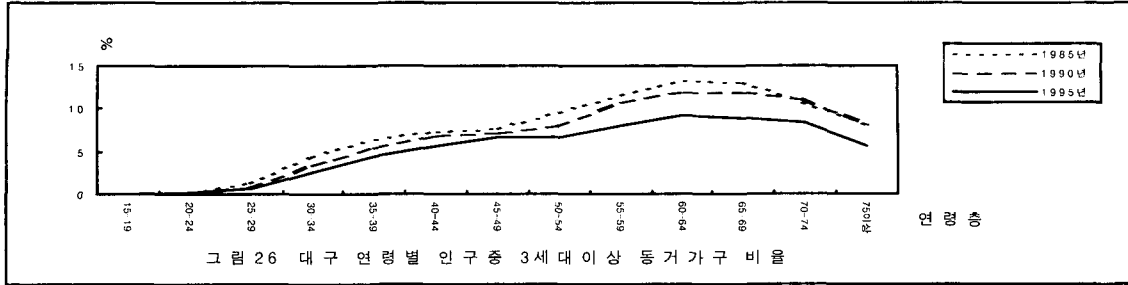


그림 26 대구 연령별 인구 중 3세대 이상 동거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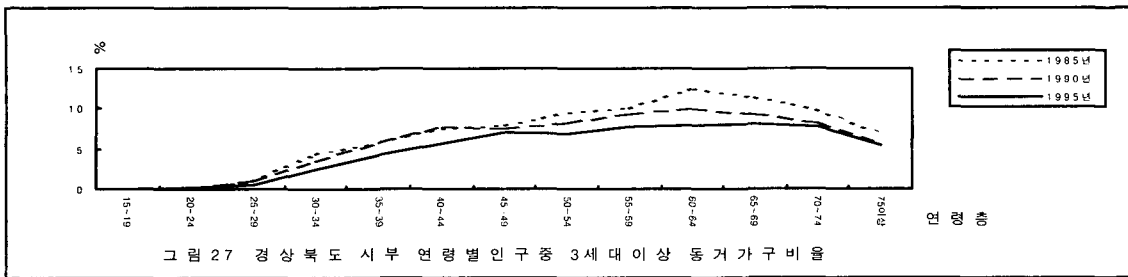


그림 27 경상북도 시부 연령별 인구 중 3세대 이상 동거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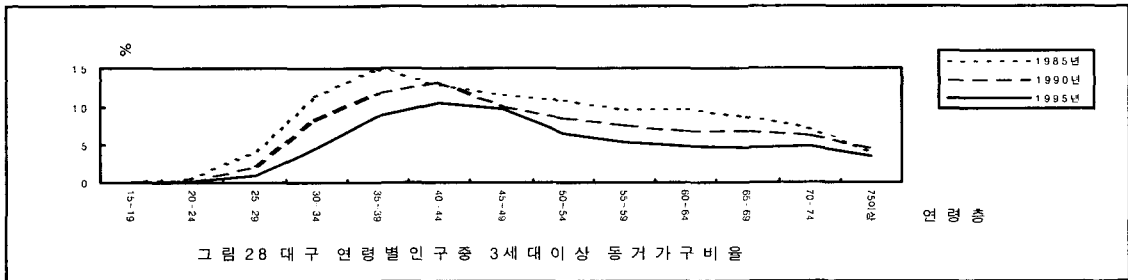


그림 28 대구 연령별 인구 중 3세대 이상 동거가구 비율

피크로 하는 젊은층의 1인·부부가구 비율보다.

70-74세를 피크로 하는 노년기의 1인·부부가구 비율이 높아 1인·부부가구화 경향은 노년기가 청년기보다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생코호트별 1인·부부가구비율의 추이에서도 연령의 증가와 함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젊은 코호트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 1인·부부가구경향이 해마다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부모+부부가구수는 1995년 65세 이상의 가구수가 서울 9272가구, 대구 2516가구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소수이기는 하나 그 수와 비율이 함께 조금씩 증가해 왔다.

3세대이상동거가구는 비율은 감소했으나 가구수 자체는 1990년까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하는 가구수는 1995년 서울 184,783가구, 대구 43,926가구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종류의 가구의 데이터에서 서울, 대구, 경북 시부, 경북 면부의 순서로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 즉, 노년기의 1인·부부가구 및 (편)부모+부부가구의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서 서울, 대구, 경북 시부, 경북 면부의 순서로 점점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3세대이상 동거가구는 거꾸로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 경북 시부, 경북 면부의 순서대로 낮아졌다. 이것은 가구구성의 변화가 서울이 가장 늦고 지방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노인주택 공급정책을 세울 때, 위

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변화가 빠른 농촌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서울의 경우 고령자부부가구화의 경향이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그 이전보다는 급격해졌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3세대이상동거주택의 보급은 농촌보다는 서울과 대구 등의 대도시에서 보다 강력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므로 도시형 주택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노인주택의 유형으로는 1인가구용, 부부가구용 외에 (편)부모+부부가구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소수이나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이 이 유형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중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며 농촌형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 주

- 1) 본 연구는 고령자를 포함한 가구수의 변천을 가구특성별 및 지역별로 고찰한 논문인, 배정인(1999) A Statistical Review of Change in 'One Person & Couple' Households including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한국주거학회지 Vol.10 No.3., 및 \_\_\_\_\_(2000) 고령자 가구 구성에 관한 통계적 연구-경북지역 기혼자녀와 동거가구의 변천경향을 중심으로, 안동개발연구 Vol.11. \_\_\_\_\_(1999) 경북지역의 고령자 1인·부부가구에 관한 통계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Vol.11에 이은 후속 연구로써,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특성의 파악을 위한 연구 중의 하나이다.
- 2) 미야케 준(三宅 潤)은 일본 국립 도요하시기술 과학대학 교수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주택공급의 변화 및 stock의 수요 동태가 남자인구구조의 변천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내었는데, 이 일련의 연구(1985)로 그는 1986년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하였다.
- 3) 배정인(1995) 인구구조상이점에 의해 본 지역별 주택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Vol.6 No.2 P.33-42
- 4) 김태일(1994) 인구구조의 변화로 본 고령화 동향과 연령별 주택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10 No.11 p.37-46
- 5) 조사 년도에 따라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큰 틀은 변화가 없으며, 이 글에서의 명칭은 1995년 기준이다.
- 6) 이 표에서 서울은 서울특별시이며, 대구는 1960년 대구시 1985년, 1990년 대구직할시, 1995년 대구광역시 동부이다. 광역시의 읍부와 면부를 제외한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할 때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하 모든 표와 그림에서도 동일하다.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 집계항목이 조사년도에 따라 달라 일부 항목은 통계가 없다. 또한 1966년은 전국의 데이터만 있어 서울 대구 모두 통계가 없으며 1970년, 1975년, 1980년은 전국과 서울 및 각 도별 통계만 있어 대구는 통계가 없다.
- 7) 배정인, 앞의 논문들(2000, 1999)에서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8) 배정인(2000) 고령자 가구구성에 관한 통계적 연구-경북지역 기혼자녀와 동거가구를 중심으로, 안동개발연구 Vol.11, p.212-217
- 9) 배정인, 앞의 논문들(2000, 1999)
- 10) 보다 정확한 변천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별 연령별 가구원수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이 자료는 1995년도만 있으므로 경년 변화를 살펴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수를 활용하여 경년 변화를 보기로 한다. 이 데이터는 1985년도부터 있으므로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10년간에 걸친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 11) 배정인(1999). 경북지역의 고령자 1인·부부가구에 관한 통계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Vol.11. p.139. 농촌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히 고율이므로 그래프의 눈금을 같은 척도로 표현하면 그래프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어 척도를 달리 했다.

- 12) 위의 논문 p.141. 경북지역의 경우를 서울, 대구의 그래프와 같은 척도로 표현하면 그래프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어 척도를 달리 했다.
- 13) 배정인(2000) 앞의 논문, p.219
- 14) 위의 논문 p.216
- 15) (편)부모+부부가구와 3세대이상동거가구의 경우는 1인·부부가구와는 달리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수로부터는 전반적인 감소, 증가의 경향만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출생코호트별 가구비율의 추이에 관한 고찰은 생략한다.

### 참 고 문 헌

1. 배정인(2000). 고령자가구구성에 관한 통계적 연구-경북지역기혼자녀와 동거가구의 변천경향을 중심으로. 안동개발연구. 11
2. 배정인(1999). A Statistical Review of Changes in One Person & Couple Households including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한국주거학회지. 10(3)
3. 배정인(1999). 경북지역의 고령자 1인·부부가구에 관한 통계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11
4. 배정인(1995). 인구구조 상이점에 의해 본 지역별 주택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2)
5. 이가옥외(1989). 노인 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6.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7. 통계청(1997).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인구특성 변화
8. 통계청(1997).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과제
9. 三宅醇(1985). 住宅需給構造の地域的變貌過程に關する研究. 新住宅普及會 住宅建築研究所
10. \_\_\_\_ (1993). 人口構造の變化と住宅建設.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更概集
11. \_\_\_\_ (1994). 人口構造の變化と住宅着工 フロ-の地域間比較. 日本建築學會東海支部研究發表會